

한·중 수출입화물 ‘갈아타기’ 없앤다

해상육상 복합운송 시대...하역시간·비용·화물파손 위험 감소

게시일: 2010-09-07 06:00 조회수: 493

한국과 중국 수출입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 양국 화물차(피견인 트레일러)*가 수출입화물을 탑재한 채로 카페리 선박에 실려 해상운송한 후 상대국 내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하는 door-to-door 복합운송 시스템, 즉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 금번 1단계 협정에서는 피견인 트레일러의 운송만 허용되므로 상대국 항만에 도착하면 당사국 견인차가 이를 연결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6~7일, 이틀간 중국 위해에서 개최된 ‘한·중 물류협력회의’에서 김희국 차관과 왕명용(翁孟勇) 중국 교통운수부차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합운송방식은 기존 카페리운송(RoRo 방식)과는 달리 양쪽 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을 운송용 트레일러에 옮겨 실을 필요가 없어 하역시간 단축에 따른 신속성 확보, 항만처리 비용 절감, 그리고 화물파손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 (운송시간) 약 3.5~12시간 단축, (처리비용) TEU당 49.5\$ 감소**

이번 체결한 협정은 약 1달 후 발효될 예정으로, 빠르면 10월부터 한국의 인천항, 평택항과 중국 산둥성의 6개항(위해, 청도, 석도 등) 사이 주요 항로에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